

전남 친환경농자재 가격 지난해와 비슷

올해 전남지역 친환경농자재 판매가격은 지난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1일 우수 친환경농자재를 적정가격에 공급하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기 위해 전남지역 192개 업체의 올해 친환경농자재 판매 희망가격을 조사·공표했다.

전남도, 192개 업체 희망가격 조사·공표

“양질 자재 공급·지역 업체 저렴 공급”

친환경농자재 판매 희망 가격은 지난 1월부터 전남 소재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원료비, 제조비, 유통비 등을 기초로 업체에서 산정한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친환경 비 재배농자들이 잡초 제

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새끼우렁이의 경우 kg당 판매가격이 지난해 평균보다 142원 오른 1만412원이다.

유기질 비료는 20kg 포대당 350원 내린 5703원, 미생물 제제는 67원 내린 1만067원으로 대다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남지역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수는 총 192개소다.

품목별로는 새끼우렁이 생산업체가 가장 많은 97개소, 유기질비료가 50개소, 미생물제제가 35개소, 기타 10개소 등이다.

친환경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4년 39개소에 불과했던 것이 무려 153개소가 늘어난 규모다.

이들 업체의 종업원 수도 214명에서 768명으로 552명이 늘어 친환경농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이번에 공표한 친환경농자재 판매 희망가격을 친환경 실천농가에서 비교 및 구매하도록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각종 교육,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가격에 판매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 업체에서 양질의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해 공급토록 하고, 농업인들은 지역 업체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저비용 유기농 실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D-150 마스코트 제막식

150 마스코트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이 총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장영완 민주평화당 의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광주·전남 3.7대1 경쟁률 ‘후끈’...과열·혼탁 양상

[3·13조합선거]

3월13일에 실시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로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예정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거판이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농협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총 202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광주는 농협 16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총 18곳의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전남은 농축협 144곳, 수협 19곳, 산림조합 21곳 등 모두 184곳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조합원인 유권자는 광주 3만660명, 전남 40만9831명이다.

1월말 기준 선관위와 농협이 자체 파악한 출마예정자는 광주 60여명, 전남 700여명 등으로 3.7대1의 평균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 대부분 수상을 위한 현역 조합장과 도전장을 내민 출마예정자들 간의 대립 구도다.

광주에서는 서창농협이 7명, 남광주농협이 6명, 광주농협동조합 6명, 동곡농협 6명의 출마예정자가 거론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전남에서는 나주미만농협이 8명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나주 산포 농협 7명, 곡성 입면 농협 6명, 장흥축산농협 6명, 신안 입자농협 6명 등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수협조합장은 거문도수협 5명, 장흥군수협 4명,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4명 등으로 경쟁률이 높다.

최종 경쟁률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후보등록에서 드러나겠지만,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때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 선거 경쟁률은 광주 3대1, 전남 2대1을 각각 기록했다.

경쟁이 치열하면서 과열, 혼탁 선거 등 구태가 여전히 재연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 선관위는 조합장 최근까지 선거 감시활동을 벌여 각각 4건, 22건을 적법하고 경찰과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5만원권 지폐를 10장씩 들

들 맡아 악수하면서 건네다 적발된 것을 비롯해 추석 연휴를 틈타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가 하면, 이에 투표권을 지닌 조합원 집으로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백만원을 제공하는 사례까지 대방한 돈선거가 여기저기서 적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판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대표적 후진국형 돈 선거문화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돈선거 등 혼탁선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면서 “불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와 함께 불법선거문준 감시에도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건강아파트 만들기 신규 모집

광주 동구가 2019 더불어 사는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이달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동구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웃 아파트와 함께 연합해 신청하면 된다. 건강아파트 사업은 건강지향적인 아파트 환경조성과 입주민 건강증진 등을 목표로 더불어 사는 건강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건강아파트에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요가·라인댄스 등 입주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지원 ▲월간 건강정보지 제공 ▲아파트 방문 건강체험부스 운영 ▲건강계단 조성 등이 지원되며, 아파트 입주민이 건강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지도자 교육도 실시한다.

서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국비 10억 확보

광주 서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 10억원의 국비를 받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서구의 우수사례는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으로 호남에서는 유일하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들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14개 시·도 및 60개 시·군·구에서 응모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8명의 민간전문가와 심사위원이 1차 PPT 심사에 이어 2차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했다.

남구, 중증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돕는다

광주 남구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올 한해 다채로운 통합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일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이곳 센터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발을 위한 편-편 데이(Fun-Fun Day)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 한해 2달에 한번씩 6차례에 걸쳐 불링과 공방 체험, 등산, VR(가상현실), 배드민턴, 연극 관람 등 체험활동을 각각 한차례씩 실시할 계획이다.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광주 북구가 민선 7기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광주 북구는 “11일 중흥동에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북구는 전남대와 광주역 주변에 2023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포함 총 380여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청년일자리·주민공동체·스마트시티 총 3개팀 5명으로 구성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 기업, 청년단체 등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현장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광산구, 마을활동지원가 선발한다

광주 광산구가 시민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마을을 넘나들며 자치·복지·교육 등을 연결·건설할 마을활동지원가를 21일까지 모집한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26일 최종 선발될 10명의 마을활동지원가는 직무교육을 거쳐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시민 발굴·상담 ▲공모사업 컨설팅·모니터링 ▲지역 인적·물적 자원 연계 ▲동(洞)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마을활동지원가 선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960-7939, 7930)나 구 주민지원과(960-8526)에서 한다.

임형택 기자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19년 13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정문성(540426-1659323)
 최후주소: 전남 영광군 군남면 군북로1길 48

위망 정문성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2월 12일

공고인: 이덕순, 정혜진, 정종신
 주소: 전남 영광군 군남면 군북로1길 48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1월 29일
 공고기간: 2019. 2. 12~ 2019. 4. 13

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정수애(1987. 4. 24생, 2018. 11. 21. 사망, 최후주소 광주 서구 영화로45번길 17, 110동 908호(화정동, 라인동신아파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2019. 1. 8. 광주가정법원 2019년 2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9. 1. 25.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재산상속한정승인에 따른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19년 25 상속한정승인
 공고인: 정해중
 전남 영광군 금정면 냉천길 60-21
 한정승인수리일: 2019. 1. 25.
 공고기간: 2019. 2. 12부터 2019. 4. 15.까지(2개월 이상)
 신고 장소: 광주 동구 지산로 71-1(지산동) 법무사 조기혁 사무소
 전화: 062-236-1255, 1257
 2019. 2. 1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지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Fax: 062-222-5548
 홈페이지: www.ihonam.com